

杭州高麗寺重建籌備에對하야

玉觀彬先生の書信 (其一)

退耕大法師慧鑑歸依

三寶 向日杭州高麗寺巡禮後에 即時其實況을 仰稟코 저 하얏스나 該寺住持와 交涉上 여 러 가지 未詳한 일 이 잇 사와 今日에야 비로소 前後事情을 伏達하노이다 高麗寺 의 位置는 杭州城外 赤山埠 竹林中 에 잇는 데 南高峯을 背 하고 西湖濱에 臨하야 天然의 佳景이 果然 우리 大覺先師 修遺하시든 紀念靈地된 에 맞당하디이다 大覺國師께서 慧因寺淨源法師의 戒受業하시다가 歸國하신後 師恩 을 報謝하코야 올러 海東佛敎의 一大光明을 矚히 中國叢 林에 投射키爲하야 巨額의 金銀과 華嚴經輪藏機를 보내 여 慧因寺를 重修하야 高麗寺로 改稱하코야 法具를 一新케 하니 鐘聲은 三十里外에서 들릴 만 큼 大하얏고 佛宇의 莊 嚴함은 當時記錄에 照하야 實로 燦爛하오나 至今에 는 荒 涼한 草屋이 風雨을 不蔽하코야 先王의 塑像만 한 法堂一 隅에 奉安되얏디이다 該寺의 遺產은 土地가 約十斗 落가

旁잇고 寺墟가 그냥 남앗스니 重建하야 方便宜할지며 現 下住持는 舍金風女史니 所謂長生敎의 信徒라 長生敎는 以佛爲體하고 以仙爲用한 다는 一種宗派니 近來에 는 該 敎徒가 高麗寺를 占領하야 香火를 受키안코 繼續하야오 는 中이오며 僧尼는 一切該寺와 來往이 絕스니 高麗寺 를 重建할 에 는 未지 그 寺址를 우리 手中에 回收하야야 되 겠기로 目下 該長生敎徒들과 交涉中 이온 바 大개 圓滿히 落着될 希冀이 잇사오며 該敎徒들은 觀彬을 그 敎門에 進 入케 하야 該寺重修後에 는 該寺를 長生敎機關으로 삼으 리는 바람도 잇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計劃으 로는 中國佛敎界의 큰 人物들의 戒이 趣旨를 말하코 杭州 省長公署에 交涉하야 官力을 빌어 佛土를 魔窟에서 回收 코저 합니다 本月廿四日 下午六時 上海功德林素菜館에 서 世界佛敎聯合會長 太虛法師 歡迎會를 開催하코야 在 滬 佛敎界名士 四十餘人을 招待하야 盛會를 開코 들엇습니다 太虛法師는 原來 觀彬의 受戒한 恩師오 今 回新加坡에 巡 禮하시다가 歸滬하신 故로 爲하야 오시고 洗塵도 할 겸 디

구나 朝鮮佛敎徒의 名義로 中原의 著名한 法侶를 款待 하야 感情을 聯絡코저 하야 이모듬을 열었는 데 그날 모인 사람은 太虛法師外에 中國佛化新青年會代表 張宗載 世界佛敎居士林長王一亭 佛化敎育社主任 劉仁宣等 諸氏 且居士 佛으로 上海總商會長 虞洽卿 交通銀行長 盛竹書等 大實業家들도 만히 와섯는 中佛敎研究家 美國 人李佳白翁과 中國佛敎觀察 次로 來滬中이든 日本龍谷 大學玉置敎授도 來會하야 鮮中佛敎界 近來 未曾有의 盛 況을 일 두 었습니다 그 席上에서 胎呈하는 歡迎辭와 高麗 寺重建宣傳書를 來會者 一同의 配付하코야 太虛法師께서 親히 朝鮮佛敎界를 爲하야 祝福하코야 高麗寺重建의 盛 事를 贊成하는 大演說이 잇섯습니다 中國佛敎界各代表 들도 모다 大贊成의 뜻을 表하얏사오며 이모듬의 紀念으 로 寫眞을 撮하얏는 時 夜間 觀彬이 十分明白히 知못하나 紀念으로 一張을 奉呈하나이다 中央에 法服입으신이 가 太虛法師오 그 뒤에 후속코로 남고 가슴에 聖徽章을 佩치者 가 玉觀彬의 幻影입니다 高麗寺重建 基本金으로 觀彬의 私財銀三千弗을 封儲한 바 잇사오고 總額은 約一萬五千 弗로 預算이온 데 만일 三十大本山에서 每山金三百圓式 但 高麗寺重建에 喜捨互助하시면 九千圓이 되겟고 其餘

殘額三千圓은 觀彬의 私財로 負擔하든지 又是 中國佛敎 徒의 도움으로 하든지 不히 重建할 수 잇습니다 日 陽洛山寺에 계시는 韓龍雲法師께서 뜻을 發하얏디니 現下 우리 나라 佛敎界의 形便으로는 金融上 相助가 어려 울 뜻을 發하야 答示하얏디이다 그러나 中原天地에 가 강佛敎勢力이 集中된 杭州에 우리 가 우리 힘으로 高麗 寺를 重修하코야 此를 保全하야서 聯絡의 機關을 삼는 다 하면 將來 三十本山에서 무슨 事業을 나르킬 썬에 高麗 寺를 通하야 中國佛敎徒들도 우리 事業에 도움을 일 이 만을 줄 잇습니다 願컨대

法師는 이 뜻을 誦히 在內各長老의 戒宜傳하야 不日成之 의 工事を 完全케 하야 지이다 (中略) 만일 國內事情이 果 然財施一單을 遂行키어 려다 하면 觀彬이 一生을 托鉢行乞하야서라도 此舉를 完成코저 發願하오나 安心하시코 힘써 敎導하야 주소서 佛力故國의 하늘을 向하야 焚香再拜하면 서 法安을 비노이다

(其二)

佛紀二九五三年十一月廿六日 法末玉觀彬合掌敬白

(前略) 日來 太虛法師의 來滬를 機會하야 佛敎製藥公 司를 創立하기로 되온 바 此는 彬의 出資로 基本을 삼고 中

國佛教徒로써 부리合資組織케 된 것임이다 그組織及實行에對하여는今後자丕仰慕코저 하오며資金은爲先十萬圓으로 하고慈悲醫院을附設하고施診贈藥하여無產同胞을救하며弘揚佛敎의事業으로佈敎堂도建設할計劃이온때야마우리나라와中國佛敎徒間에事業을함께合作함은이로써미못하야將來에 더욱만출을잇습니다

中國佛敎新青年會長張宗載氏는日前에親히맞나協議한結果其青年會의本部를上海에 두고事業을合作키로 하야大개言約하였습니다 杭州高麗寺에對하여는其重建籌備의方法을前函에詳告하였삽거니와斯舉에對하여時賜高敎하시비옵나다(下略)

佛紀二九五三年十二月一日玉觀彬合掌敬白

(其二)

(前略)頃接舊十一月四日 慈翰하와所戒를伏悉이온바無似한禮越의行爲를 惠恕하시고이치령慈訓을三가지의인신신受敎感德의至極함을不任하옵나이다

다邊東華先生은前日屢次敎誨에오셔서親交가잇섯스나該師가法侶이신줄은全然不知다가及其日前에야바야오르셔로알게되야晚時를囑하고同志됨을잇기하얏습니다今後該師가

法師의代理로高麗寺籌備에努力케되시니엇지殊勝의緣이아니오릿가(中略)當分間邊東華師와觀彬이責任지고籌備에努力하게삽고亞太虛法師께서만하도아주시오니幸甚이오며이곳에되는일과잇이얏로三進行할일은오리

尊敎를是仰할것이오니國內國外에서되는일을一切指導하야주시옵소서國內事情이募化하기어려운줄은임의뜻자잇습니다一切萬事가時會와因緣이오니구하여역지로募化할것은임사오며或菩提의心이잇는信男善女가眞心眞情으로自願施財하셔는이잇스면己어니와그리치아니하오면觀彬이一生托鉢의苦行募化로써我先師의紀念道場을重建하을誓願을立하얏나이다그러나수에임의

法師의慈悲하신慈德의도음이계시오니밖뜻이內外法侶가一致協力하야도오실줄잇나이다(下略)

佛紀二九五三年十二月十四日 玉觀彬 頂禮

中鮮佛敎 西湖高麗寺 紀念道場 位置

沿杭州之西湖 轉入南高峯下赤山埠 有一古刹 名曰高麗寺

十景
 寒泉瀉珠、玉岑聳峙、懸澗環流、蚊窗橫缺、雲窩怪石、巖巖神功、輪藏宏雲、普門却暑、瑞光古像、經閣幽觀

沿革
 宋元豐七年高麗文宗王第四子大覺國師釋義天 來宋求法 哲宗帝迎見 禮遇備至 詔往杭州華嚴座主淨源講下受業 翌年還國 遂送金銀 創建此寺 安置華嚴經輪藏機 弘揚佛化 鑄造十尊大鐘 聲聞三十里 大雄殿千佛閣七祖堂等 佛宇莊嚴 道場燦爛 以飲水思源 藉報師恩也 歷代韓王 時有修葺 得以不廢 今皆化爲烏有 而荒涼草屋 不蔽風雨 可謂色相之起滅 等於幻空

籌備
 現今朝鮮佛敎徒 謹承大覺先師報恩弘法之遺緒 擬重建高麗寺 藉作中鮮佛敎傳授源流之紀念道場起見 特派慧觀 在滬籌備 一俟有緒 着手起工 伏願中鮮兩國諸大善士信女 時賜惠教 是所馨禱

太虛法師歡迎詞

當聞佛之敎也性相常住悲願洪深窮三際遍十方雨露以潤之雷霆以鼓之不行而至不疾而速五目不能睹其容四辯不能談其狀其體也無去無來其用也有生有滅故玉毫垂相而靈蹟顯於西方金人入夢而正法流於東土佛紀一二九九年順道大師自秦來韓始傳佛法自是西域無爲之道入我東方有緣之士三韓十二宗派之沿革源自中華雞林九百寺刹之由緒根出神州授法乳之慈母傳心印之導師盡是中國歷代之高僧大德然真境希夷玄津渺杳澄如滄海漢如蒼穹智舟何以達其涯慧駕莫能尋其際况復去聖逾遠滯凡既深弱肉強食進化之學說優勝劣敗侵略之主義橫行宇內正法晦冥若非哲人出世開士乘時高演真宗廣種善根何以救末法時代之衆生安得拯二十世紀之蒸民惟我

太虛上人提倡世界佛敎聯合會於廬山組織佛化教育社於申江親遊東瀛宣揚仁風巡錫南洋重光佛日東方文化從此中興佛敎正派由是維新翹足可待期日可睹鄙人猥蒙上人之不棄收爲門婿何幸如之何榮如之今日謹代表在滬朝鮮佛敎徒敬表歡迎

太虛上人及中國諸大居士之徵衷今後中鮮佛敎可續舊緣將結新果此所區區馨香而祝禱者也

佛紀二九五三年十一月廿四日在滬朝鮮佛敎徒代表 玉慈觀合掌敬白

西湖高麗寺重建發願文

嘗聞佛之法也淨洒洒而絕名言孤烟迴而沒對待無去無來非有非空一念靈明生佛本來同體萬緣紛擾毒凡從此分途慧觀身寄異域心憂末法諦觀人生苦海皆由貪嗔毒業造成現世地獄舉步砲火鎗林慘絕萬倍虎狼搜盡資山財海侈慾一如洪水仁政不如金錢人命何異鷄犬殺子刃刀率獸食人皆曰予智人類可恥有過此因感亡國之哀情久發出家之悲願曾捨身為四期濟族救級只緣力薄恨無可施杞憂志切稿有所感已未九月飄然渡華或遊基利斯督穆罕麥德之門研究博愛義勇之道理或投馬克斯克魯泡特金之黨見聞無君共產之學說而悟幻相之非真覺人生之無常遂皈依三寶星霜八迭昨秋偶遊江南西湖之上巡禮高麗寺之廢墟此寺即我前朝文宗第四子大覺國師之所創建而歷宋元明清代有修葺得以不廢至今當地善男信女發其菩提之心相與構屋以奉安佛陀及高麗文宗王之塑像香火不絕按西湖誌是寺之創建也大覺國師備置一金字華嚴經輪藏機其制一柱八面遍寫經文讀者轉其機以目之又有十尋大鐘聲振三十里及大王閣千佛殿七祖堂等莊嚴之建築奇妙之雕刻今皆化為烏有而荒涼草屨不蔽風雨其存也僅焉則可謂色相之起滅等於幻空竊念鹿苑之風不振已五百年寶嶺之絃沉音於三千里嗟我權城世運衰而道弛教綱墮而魔聚當此佛日雲開邪氣風行之秋如非高張法幢橫斷慧劍何以備邪顯正度世救生慧觀自忘謫陋焚香誓願期重建高麗寺先積立私財三千元以作基金其願雖少其力可笑雲水萍蹤於情堪哀伏願國內諸山長老護法長者共出身手廣施法財完成斯舉心燈一照光明無量我佛有靈拈花微笑謹此發願

南無佛 南無法 南無僧
上海四川路三德洋行內
高麗寺重建籌備處 玉 慧 觀 頂禮
佛紀二九五四年一月一日

贈玉慧觀居士

世界佛教聯合會長 太虛法師
殷仁 漢德湖當年
中道何曾離兩邊
都率人天歸佛法
心光直透未生前
此詩是太虛法師于玉觀彬先生所
刊書贈者以玉慧觀先生所
號

高麗寺重建施主芳名

- 玉觀彬 參千元 上海四川路一二號
 - 金成得 伍拾元 上海法界城斐德路崇一里九號
 - 孫昌浩 伍拾元 上海榆林路榆林里一三五五號
 - 玉仁泰 伍拾元 平壤府景品里十三番地
 - 玉仁桓 伍拾元 上全
 - 玉升彬 伍拾元 大同郡栗里面戊辰市場
- 合計銀洋參千貳百伍拾元正
佛紀二九五三年十二月十四日現在

佛教彙報

天候奉禱

中央教務院에서
三日間盡誠舉行
天皇陛下에 올서 天候가
廳寧하사 漸漸危篤에瀕하
심에 一般이恐懼追追中임
으로 教務院에서는 天候
의平復하시기를 祈願하야
十二月十六日로 부터同十
八日까지의 三日에亘하야
祈禱式을奉行하엿다라

佛專建築入札

過般評議員會議에서 佛專 普

高의兩校를同時建築하기로議決된 바이나 其間事情에依하야 普成高等普通學校의新築안에着手된것은一般이周知하는바一切手續이모다就緒되앗기로 大正十五年十二月十一日에 中央教務院理事及職員一般과宗敎課主任出口勇吉洪錫謨兩氏京畿道技手西島廣太郎氏의立會下에 請負業者의入札을受한結果 三萬六千二百四十圓으로渡部傳四郎氏의게 落札되야不日建築工事に着手하리다라

極北의瑞光院

朝鮮北地의極端에잇는會寧郡東門外에는 淸信士金有極淸信女鄭氏博光兩氏의熱誠으로念佛房一所를精構하코金氏極樂行의願力으로白龍城和尚을請遊하야舊曆八月

大興寺念佛房

初三日에奉佛式을舉行하앗는때信男信女가千餘名이出席하엿스며厥後로는每日三百餘名式集合하야高聲念佛로精進하오로會寧一帶는於是乎에佛國으로化한다하며該念佛房은大興寺라命名하엿다라 (會寧)

妙香山住持 朴普峰和尚勇退

平安北道大本山寧邊郡妙香山普賢寺住持朴普峯和尚은事情에依하야十二月四日에住持를辭免하고臨時事務取扱者는金龍海和尚으로選定되엿다라 (普山)

釜山佛教消息

布敎堂의現況
慶南釜山府草梁町에잇는釜山中 央布敎堂은吳愷月門人金在能師가